



16년

익산시, 국내 최대 바이오 메카 선정 나선다

전주매일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음 8월 20일) 제309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김관영 전북도지사(사진 왼쪽)가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과 면담을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김 지사가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전북 금융도시 조성 소통행보 돌입

김관영 도지사,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권남주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릴레이 면담
금융중심지 지정·금융산업 발전 방안·기업부실 사전방지 위한 지원방안 등 논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관계 기관장들과 릴레이 면담을 가지며 소통의 장을 열었다.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NPS) 이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사장과 릴레이 면담을 가지며, 전북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 소통행보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14일 오전 김태현

신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첫 면담 자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며, "전북도의 자생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단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공단 간 연대 강화 및 지속적인 소통 기회 마련으로 가장 우수한 지자체-이전 공공기관 협업 사례로 이야기하자고 제안

하면서, 김태현 이사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면담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금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금융산업 인프라 구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로 기업의 재무적 부담 심화로 인해 기업부실 확대가 예상됨에 따

라 기업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지원방안과 코로나19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간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민선 8기 출범을 계기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국민연금공단 및 자산관리공사 기관장과의 논의 자리 뿐만 아니라 전북 금융도시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철새가 도래하는 10월에서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도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전북도는 차량 사탕,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을 기존 20개소에서 29개 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전년 7월 대비 약 75%(28건→212건) 증가했고, 이 중

99% 이상이 H5N1형으로 확인되는 등 해외에서 위험성이 한층 고조된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올 겨울철 철새 도래기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높다고 판단하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축산차량 출입통제 대상지점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거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양성으로 최종 관정된 지점,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와 시·군은 누리집 등에 통제계획을 게시하고 철새도래지 차량출입 통제 구간 진입로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통제대상은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

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다. 통제구간 진입시 차량무선인식장치(QS) 감지를 통해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경우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철새 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조치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특별방역기간) 운영된다.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더 풍성하게... 더 밀도 있게...

16일부터 열흘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일정 늘려·공연공간 확장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 소리문화전당 모악당서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오는 16일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를 시작으로 열흘 간의 화려한 소리 여정에 나선다.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김한)가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다채로운 소리의 향연으로 도민들을 초대한다. 올해 축제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상영과 제한된 관객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보다 풍성하고 밀도 있는 구성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해외 5개국과 76회의 다채로운 공연들로 열흘간 전라북도 일대가 음악의 파노라마로 물들일 예정이다. 특히, 2022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축제일정을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주요 공연공간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비롯해 부안 채석강,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 등에서 펼쳐진다. 이날 7시에는 모악당 로비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한 위원장이 관객 맞이에 나선 예정이다. 박재현 집행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작품 중심 예술축제로서 디지털과 지역 브랜드 그리고 예술의 고도화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재의 질문이며, 그 가치와 목표를 아티스트, 관객들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고 설명하고 "공연 하나하나에 공을 들인 만큼 몰두하고 몰입하는 속에 너지를 확장하는 명소공원이 3개 지역(부안 채석강,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연화루)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한 혼적들도 눈에 띈다.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를 비롯해 이머시브 가족뮤지컬 '알피 ALPI', 왕기석 명창의 수궁가 채희강 편: 은라인 스트리밍, 국악AI 학습데이터 해커톤 기계학습데이터 매핑 sai N, 메타버스 어린이 그림 전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흘 간의 화려한 막을 여는 개막공연은 김관영 도지사와 김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을 시작으로 일곱 개의 유니버시스 플라보 공연이 이어진다. 개막공연 '백년의 서사'는 16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펼쳐진다. 이날 7시에는 모악당 로비에서 김관영 지사와 김한 위원장이 관객 맞이에 나선 예정이다. 박재현 집행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작품 중심 예술축제로서 디지털과 지역 브랜드 그리고 예술의 고도화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현재의 질문이며, 그 가치와 목표를 아티스트, 관객들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다"고 설명하고 "공연 하나하나에 공을 들인 만큼 몰두하고 몰입하는 속에 너지를 확장하는 명소공원이 3개 지역(부안 채석강,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도, 올해도 어가당 연 60만원 '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군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수산업·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어가당 연 60만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으로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군별 읍·면·동을 통해서 도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결과 2,555 어가가 신청했으며,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최종 지급 대상자 2,183 어가를 확정해 어민 공익수당을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으로 지급한다. /김경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정지은, 박지은, 박홍규, 도지인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2 대학생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천 원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 원 속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천 원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 원에 당신의 행복을 살 수도 있습니다.
소액 기부로 당신의 행복을 사시겠습니까?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로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